

쓰기 교과목을 개설하고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락이 교양교육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최근의 대학글쓰기 교육의 차원은 전공 글쓰기, 학술 글쓰기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교양교육원이나 기초교육원 등의 기관의 차원에서 시도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센터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연계(WAC)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진일보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학문후속세대의 중요한 연구역량인 글쓰기 능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겠다.

전공 학술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교수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공 교과목에서 글쓰기를 가르친다? 얼마간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경우를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에 전공 학술 글쓰기 교육의 한 가능성을 글쓰기교실에서 운영해온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의 수상작과 해당 교과목의 교수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의 역사와 그 콘텐츠는 학생들의 글쓰기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글쓰기 지도법에 있어 한 모델에 값하는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이 대회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나가는 동시에 교수자가 해당 학문의 학술 글쓰기 교육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수상집을 한 번이라도 펼쳐본 독자(교수)라면 알 수 있으리라,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집>은 우리 학생들의 학술 글쓰기의 향연임을 그리고 해당 학문 교수자들의 글쓰기지도의 결과임을.(끝)

질문이 곧 답이다!

● ● ● 장 한 별 월스피치

교수자가 열정을 담아 많은 내용을 전해주면 학습자들은 많이 수용하게 될까? 미국 버지니아NTL(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의 학습피라미드 연구결과를 보면 단순히 강의 듣기만으로 공부했던 학생은 24시간 후에 겨우 5%만을 기억하였다. 많이 전해준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며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교수방법의 답을 찾는 교수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을 쓰다니며 질문을 통해 사람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가르쳐주거나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물었을 뿐인데 배움은 저절로 따라왔다. 질문만으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노예소년에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깨우치게 만들 정도였다. 강력한 호기심을 가졌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많은 양의 지식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사고를 촉진하게 해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의 교수역할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학업에 빠져들게 만들고 사고와 활동을 촉진케 하는 가르침의 중심에 바로 '질문'이 있다.

학창시절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다들 복습했지요? 오늘이 25일이군요. (출석부를 보더니) 25번 학생! 대답 해봐요, 무슨 이론이었죠? (잠시 기다리더니) 왜 대답을 못하지? 왜 공부 안했지요?”

순간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는 미어캣 무리처럼 긴장하며 ‘그 다음이 제발 나는 아니기를’하는 마음으로 교수의 눈빛을 피한다. 강의실에는 정적이 흐르며 가

끔 킁킁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린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집중을 느끼며 수업 분위기가 좋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이런 방식의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예습을 해올까? 물론 해온다. 필자도 학부시절 이와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교재는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다. 소크라테스는 원리를 묻는 질문이나 때로는 난처한 질문도 던졌다. 그는 에우튀프론에게 경건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하며 모순을 깨우치려 했지만, 결국 에우튀프로는 다른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렸다.

학습자에게 충분한 학습동기가 있다면 상세하고 날카로운 질문은 효과적이다. 그의 모순을 깨우치며 사고를 넓히고 더 깊은 배움의 세계로 인도해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나 흥미가 충분치 않다면 시기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배움의 촉진제가 아닌 지적인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공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에우튀프론처럼 학습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내가 던지는 질문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지, 현재의 의욕과 동기에 맞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효과적일까?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들(Michael Sandel) 교수는 수업의 도입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무섭게 달리는 전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 전방 선로에는 인부 다섯이 일하고 있다.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 축선으로 전차를 돌린다면 인부 한 명이 죽는다. 당신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학습자들을 강의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거수투표와 토론을 촉진하였다. 공리주의 수업에서는 빌 게이츠와 데이비드 벅의 연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며 꼬리를 물면서 영역을 넓혀 정의론과 직업윤리로 주제를 확장해 간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학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항상 학생들의 신선한 관심거리를 알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소재를 매력적인 질문으로 만들어 학습자들을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도입부와 새로운 학습 내용의 등장 시에서는 학습자를 학습의 섬으로 안내할 수 있는 다리처럼 흥미를 자극하는 질문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문화나 이슈 등의 배경지식, 이익과 연결되는 질문이라면 몰입의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단계에 맞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블룸의 인간사고분류 체계(Bloom's taxonomy)는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의’로 이루어져 있다.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인지 수준을 요구한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분석과 창의 수준의 질문을 던진다면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며,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던지는

‘Why’ 질문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벤터빌트대학교의 자넷 노던(Jeanett Norden) 교수가 가르치는 뇌신경학은 범위가 매우 넓다. 그녀는 abcd 난이도를 정해 논리적으로 계단식 방법을 사용하며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전달하고 물어볼 내용을 조절한다. 뉴욕대학교의 메리 앤 홉킨스(Mary Ann Hopkins)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많이 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차례로 질문을 던지고 수십 명이 나와서 답하게 한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녀는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판단하면 즉석에서 질문을 바꾸거나 힌트를 주며 학생들이 답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배려한다. ‘화폐가 왜 필요할까’를 ‘세상에 돈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처럼 바꿔서 표현하는(rephrasing) 전략¹⁾을 사용하거나 선택지를 주고 답하게 하는 단순화 전략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처음에는 쉽고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점점 사고를 요하는 심화적 질문으로 옮겨가며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져들게 해야 한다. 홉킨스 교수처럼 질문 후에 학습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사고하는 중이라면 좀더 기다려주고 어려워한다면 질문을 쉽게 바꿔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에릭 마주르(Eric Mazur)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받는 가장 큰 혜택은 하버드대의 교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버드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수의 임무란 상호 간 토론과 가르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열정적인 많은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가르쳐주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면 질문을 통해 흥미와 몰입을 일으키며 학습자의 장점을 자극해주는 것이 사고와 활동을 촉진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일지도 모른다.

The mediocre teacher tells. The good teacher explains. The superior teacher demonstrates. The great teacher inspire. - William Arthur Ward

1)김재봉. (2004). '교사 질문-학생 대담-평가'대화연속체에서 교사 질문 전략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7-75.